

대놓고 코믹하든지... 은근히 웃기든지

안방극장 '정의 메시지' 코믹하게 전달한다

'열혈사제'부터 '국민여러분'까지... 사회비판 풍자 시청자 공감

영화 '극한직업'이 쏘아 올린 코미디 붐이 안방극장까지 이어졌다.

시청률 20%에 근접한 SBS TV 금토극 '열혈사제'부터 첫 방송부터 7%를 돌파한 KBS 2TV 월화극 '국민여러분!', 그리고 수목극 정상을 지키는 KBS 2TV '닥터 프리즈너'까지. 요새 TV 드라마는 대놓고 코믹하든지, 최소한 은근히 웃겨줘야 시청자 눈을 사로잡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코믹극들이 영화 '극한직업'과 다른 점은, 드라마들은 여전히 시청자에게 공감과 응원을 받을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열혈사제'에는 불의를 보면 좀처럼 분노를 사지 못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사제가 등장한다. 바로 김남일이 연기하는 주인공 김해일이다. 대천사 미카엘이라는 세례명이 무색하게 그는 늘 뼈뺀 눈빛을 쓰는 알콜중독자, 게다가 경찰서에서조차 비위에 거슬리면 돌려차기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세상에서 본 적 없던 열혈 사제의 부조리를 향한 하이킥에 시청자는 열광한다. 버닝썬 게이트를 비틀어 본 '라이징문' 클럽 에피소드 등은 갈 데까지 가버린 현실을 떠올리게 해 몰입감을 높이면서도 코믹한 연출로 무게는 덜었다. 현실을 뜯어보고는 싶지만 심각하게만 보기에 불편하고, 시원한 사이드와도 같은 일갈을 원하는 시청자에 '열혈사제'가 택한 풍자 방식은 유효했다.

'국민여러분!'은 '열혈사제'보다도 대놓고 코미디를 지향하는 작품이다. 과장된 제스처와 말투 연기로는 이미 검증된 최시원, 그리고 차분한 듯 몸 사리지 않는 이유영이 첫 방송부터 외외의 코믹 조합을 보여주면서 시청자 눈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이 작품은 '열혈사제' 속 정의로운 사제와 달리 사기꾼 양정국(최시원 분)이 주인공이다. 어

찌다 보니 신분을 숨긴 채 여형사 김미영(이유영)과 결혼까지 하고, 박후자(김민정)에 의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양정국은 김해일 신부와는 다른 의미로 정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첫 회 TV 토론회에 출연한 그가 지역 지하철 건설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용할 사람이 없이나 되겠다. 바라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냐. 집값!"이라고 일갈하는 모습은 사기꾼이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이후에도 정치판에서 뻔뻔하게 좌충우돌하며 결국 정의로움에 대한 메시지를 깨우쳐가게 될 양정국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가 기대를 보낸다.

'열혈사제'와 '국민여러분!' 외에도 '닥터 프리즈너'와 MBC TV '더 벡커' 역시 코믹 요소를 갖췄다.

'닥터 프리즈너'는 교도소 의료과장이 돼 '갑질' 하는 재벌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복수를 꿈꾸는 나이제(남궁민)와 기존 권력에 기생하는 선민식(김병철) 간 대결 구도가 얼음장처럼 예리하고 차갑게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조종하는 나이제와, 완벽한 듯 틈새를 보이는 선민식이 과장된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이따금 웃음을 자아낸다.

'더 벡커' 역시 은행 조직 내부의 불합리함에 맞서게 된 갑 노대호가 감상숙 특유의 연기 톤으로 '슬로우 코미디' 속 주인공처럼 그려진다. 원작을 보는 듯 일본 만화 속 엉뚱한 중년 히어로 같은 모습이 장르극인데도 유행과 여유를 선물한다.

안방극장에 내리진 '정의로운' 메시지를 코믹하게 전달하라'는 과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MBC TV가 8일 선보이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역시 양년엔 불의를 잡지 못하는 폭력



'열혈사제'



'국민여러분!'

교사였던만 이제는 복지부동을 신념으로 삼은 공무원 조진갑(김동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발령받은 뒤 갑질하는 악덕 사업주를 응징하는 모습을 유패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국민여러분!' 제작사 몬스터유니온 관계자는 6일 "한동안 진지하게 사회를 비판하는 장르극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안방극장에서는 가벼운 듯 유패하게 풍자하는 작품이 공감을 얻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젊은 시청자에게는 전체 스토리라인이나 중간중간 유입해서 봐도 쉽고 재밌게 이해되는 개별 에피소드도 중요하다"라며 "한동안 이런 트렌드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스타들 기부 릴레이

강원 산불피해 이재민 도움



씨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스타들의 따뜻한 기부 릴레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7일 연예계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가수 씨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아이유

씨이 외에도 배우 김서형과 김소현, 김우빈, 2PM 준호(이준호), 윤보라, 임시완, 차은우, 천우희 등 많은 연예인들이 선뜻 모금에 나서며 이재민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엔 아이유, 송중기, 정일우, 슈퍼주니어 김희철, 유병재, 워너원 윤지성, 김은숙 작가, 심현섭 등 많은 연예계 인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스타들의 기부 릴레이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는 "5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도 기부 문의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산불은 강원도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530ha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타고 주민 약 4000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정부는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6일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아이템(재)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남도 해방을 외치다 55 열린공간 토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침착한 주말 X 마리텔 V2 55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차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보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빠샤 메가드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란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00 윈속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교황건문록 남도에 살리리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쫄리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임정 100주년 기념 특집 백년만의 귀향 집으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이육사>			
10	00 가요무대	00 국민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재>	10 안녕하세요	10 설탕의 제국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형
07:00 레이더버그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고고디노 공룡탐험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채소전골과 연어구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안데스 방랑기 1부 임가의 길을 걷다 쿠스코>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탐험 구조대	<뽀뽀뽀 섬진강 1부 불이 그렇게도 좋나요>
09:15 뽀뽀뽀 뽀로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윈다볼즈	16:15 짹과 팡	22:45 글로벌 이빨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4:50 세계의 드라마 <라이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냉이볶음밥과 토마토달걀말>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궁극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루리라. 48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몰입 작업이 활발하다. 60년생 부담스러워했던 짐을 털게 될 것이다. 72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 된다. 84년생 성부가 경각에 달려 있으니 지금은 오로지 집중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75, 65
丑	37년생 본격적인 판례할 만하니 앞뒤 가리지 말고 주마가편해야 한다. 49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61년생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보자. 73년생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85년생 선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54, 72
寅	38년생 첫머리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리라. 50년생 직접 나서지 않고 측면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도 괜찮다. 62년생 처리 방법과 기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74년생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86년생 일제 점검해 보라. 행운의 숫자 : 87, 31
卯	39년생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51년생 일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 후퇴도 무방하다. 63년생 차제에 보완하자. 75년생 순조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87년생 진력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8, 99
辰	40년생 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52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까지 수정하라. 76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88년생 끝까지 경정해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39
巳	41년생 별난 것을 접하게 될 것이다. 53년생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65년생 상대의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77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89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86, 50

4월 8일 (음 3월 4일 乙亥)

午	42년생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지 살펴보자. 54년생 듣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니라. 66년생 넓고 깊은 물속에 큰 물고기가 사는 법이다. 78년생 남비가 있을 수다. 90년생 단 번에 큰 것을 이루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점진적으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45, 63
未	43년생 떨어져 있어서 인연이 박하다. 55년생 대처해 나아가는 방식과 기교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67년생 세부적으로 재검토 해야만 할 것이다. 79년생 차질이 빚어지겠다. 91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둥근 일점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45, 63
申	44년생 제대로 보아야 정확한 형세를 알 수 있는 법이다. 56년생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68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정산해야 한다. 80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92년생 살펴만 보아도 쉽게 파악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41
酉	45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7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전체적인 국면을 이해한다. 69년생 매끄러운 방법의 구사가 절실하다. 81년생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목이 보인다. 93년생 긴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85, 87
戌	34년생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안게 된다. 46년생 주변과 조화를 깨뜨릴 수도 없느니라. 58년생 아예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속 편하리라. 70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82년생 길조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8, 20
亥	35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47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59년생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71년생 범위를 확대시켜야만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느니라. 83년생 쉽게 잠들었다면 머지 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행운의 숫자 : 07, 1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